

<2018년 8월 15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지금 섭리사는 <하나님이 그날그날 원하시는 일>, <우리가 매일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부활되어 가고 있고, 또 <옛것>을 장사지내고 ‘새 것’을 행함으로 망가진 차의 부속품을 바꿔나가듯 하고 있다.
2. 건강할 때, 혹은 아픈 자들은 병을 고쳤을 때 자꾸 관리해야 된다.
3. 목숨을 걸고, 마치 자기가 최고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듯 해야 병이 고쳐지고 건강해 지듯, <부활의 역사>에서도 자기를 부활시키는데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
4. <시대의 부활>은 이미 됐다. 곧, <주>를 믿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부활은 됐다. 그러나 ‘십자가’로 인해 또 죽은 바가 되었다. 고로 다시금 완전히 죽고, ‘새로운 부활’을 해야 된다.
5. <십자가>로 인해 죽었으니, 다시 ‘부활’을 꼭 해야 된다.
6. <십자가>로 죽듯이, ‘자기 인성, 자기주관, 자기 생각, 자기 행위’는 완전히 죽고, 새롭게 살아나야 된다.
7. <십자가>는 ‘희생’이다. <희생함>으로 ‘죽는 것’이다. 자기를 희생하여 ‘자기가 하던 행위’를 못 하게 만들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살아나야 된다.

8. 형제를 미워했는데, 다시 깨닫고 사랑하면 ‘부활된 것’이다.

9. 죽으면, ‘사망권’에 있다.

10. 사랑하면, ‘생명권’에 있다.

11. <사는 것>이란, ‘원래 상태로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산자의 일을 하는 것’이다.

12. <한국어>는 ‘자음’과 ‘모음’이 절대적으로 합쳐져야 글이 된다. 이같이 절대적으로 행해야만, 부활되고 살아난다.

13. 안 하면, 누구라도 안 된다.

◎ 자기가 휴거됐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혹은 휴거된 것은 알지만, ‘어느 정도 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휴거됐는지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14. <결혼>을 했으면, ‘휴거된 것’이다.

15. 결혼했어도 <결혼 생활>을 안 하니, ‘내가 결혼한 것인가? 결혼했다는 근거가 무엇이지?’ 하는 것이다. 결혼했으면, 목숨을 걸고 서로 사랑하고, 같이 생활하고, 한 몸이 되어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결혼했나?’ 하는 소리를 안 한다.이같이

〈휴거〉도 그러하다. 자기가 ‘휴거 됐나? 안 됐나?’ 하는 것은 ‘자기 사랑’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다. 곧, 자기 심리적인 것, 정신적인 것이다.

16. 자기가 사랑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며 살고,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사는 자들은 ‘휴거’를 확인할 것도 없다.〈자기〉가 ‘증거’다. 왜? 자기가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삼위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구원과 휴거’를 믿으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생활을 안 하니 누가 “너 결혼해서 신부 됐다. 휴거 됐다.” 해도 안 믿어지는 것이다. - 이것이 ‘자기 휴거’를 아는 첫 번째 단계다.

17. 〈두 번째 단계〉는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다. 자기 휴거가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가르쳐 주신다. 혹은 〈꿈〉이나 〈계시〉를 통해 ‘휴거’를 분별할 수 있다.

18. 〈휴거된 자들〉은 다 ‘왕관’을 쓴다. 왜? 성자께서 “나의 사랑하는 신부다.” 하고 인정하고, ‘사랑의 상징’으로 왕관을 주시기 때문이다.

19. 영계에서 보면, 〈드레스만 입고 왕관 없이 다니는 자들〉도 있다. 이들은 ‘결혼식의 주인공’이 아닌, ‘구경꾼’이다. 그중 일부는 아직 자기를 ‘휴거의 영’으로 만드는 과정 중이라 그러하고, 혹은 때가 됐어도 왕관을 못 받은 자들은 그 사랑이

100% 완벽하지 못해서 그러하다.

20. <부활>도 확실히 해야 된다. 그리함으로 ‘부활의 옷’을 입어야 된다.
21. 많은 생명을 전도하면 받는 <생명의 면류관>,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받는 <의의 면류관>, 또한 휴거의 조건을 세워서 받는 <신부의 면류관> 등 거기에 해당되는 각종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다 ‘부활’ 시켜야 된다.
22. <부활>도 ‘보통급, 중간급, 상위급’이 있다. <최고 높은 신적 부활>은, 늘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100% 살면, ‘신적 부활’을 이루고 그에 해당되는 삶을 살게 된다.
23. 하면, 다 할 수 있다.
24.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완벽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글자>도 자음과 모음을 완벽하게 딱 붙여놔야 ‘글자’가 되듯,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완벽하게 흠 없이 자기를 만들고 나아가야 된다.
25. <자기 일>을 완벽하게 하듯이, <밥을 먹을 때> 완벽하게 먹듯이, 하나님 앞에도 완벽하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며 모시고, 섬기는 것이다.

26. 사람들은 자기가 ‘완벽하게 행하는 것’ 이 있는데도 잘 모른다. 가령 <사진을 찍을 때> 구조를 보고 하늘도 넣고, 산도 넣고, 자기도 넣고 찍으면 완벽하게 찍은 것이다. <말할 때>도 또 박또박하면, 완벽하게 한 것이다. 또 <약수물>을 한 컵 떠서 완벽하게 마셨으면, 그것이 ‘완벽’ 이다. 또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했으면, 완벽하게 인사한 것이다. 이같이 하나님도 좋아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기뻐 살면 누구든지 완벽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쉽다.” 말씀하셨다.

27. 하나님께서 “해라.”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아라.” 하신 것은 안 하면 된다. 그러니 얼마나 쉬우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쉬운 것이다.

28.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고 하는 자>는 그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이다.

29. 사랑하면, 다 할 수 있다. 사랑하면, 뇌가 가동되니 미쳐서 한다.

30. <변화>는 ‘부활’ 이다. ‘만드는 것’ 이다.

31. 만들면, 그 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32. <소나무>도 손질하고, 만들면 그 전과는 상상도 못하는 차이를 만든다. 그래서 <자기>도 만들고, 관리하라는 것이다.

33. <만들기>에 달렸다. <해 놓기>에 달렸다. <단장하기>에 달렸다.

34. <월명동>도 만들기 전에는 ‘썩은 물이 내려가고, 답답한 가시덤불 숲속’ 이었는데, 만들고 단장하니 지금은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하나님의 궁이 되었고, ‘썩은 물 한 방울’도 보기 힘들다. 이와 같이 <자기>도 만들고, 단장하고, 부활시켜야 된다. 그래야 이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35. 자꾸 자기를 만들어라.

36. 만들었어도, ‘자기중심, 자기 생각,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만들면 형편없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만들어야 된다.

37.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만들어라.

38. <자기>라는 작품을 멋있게, 이상적으로 만들어라.

39. 멋있게, 이상적으로 자기를 만들려면, 배워라. 배우고 행하면, 그 센터는 모두 부활된 것이다.

◎ 이 말씀을 듣고 자꾸 자기를 만들고, 관리하기 바랍니다.
<자기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 그리도 큼니다.